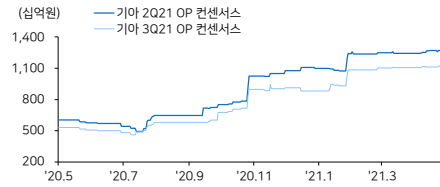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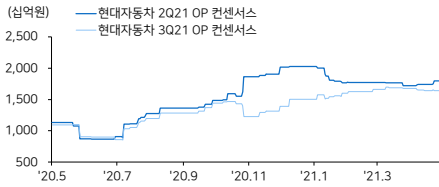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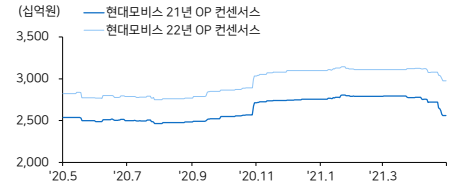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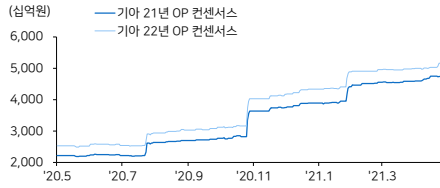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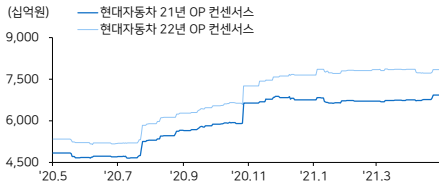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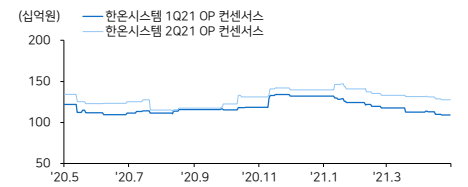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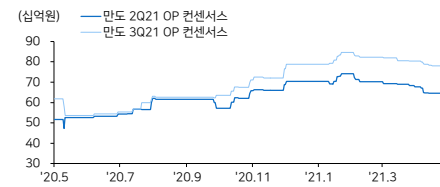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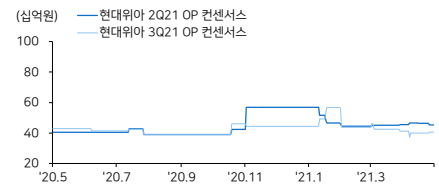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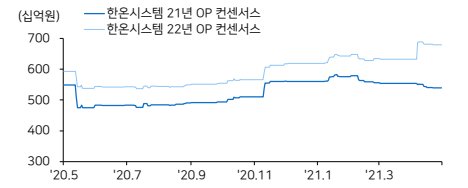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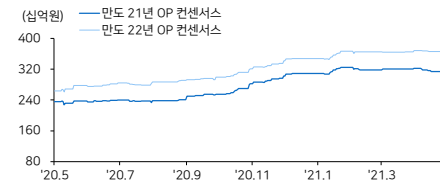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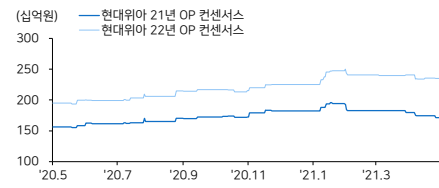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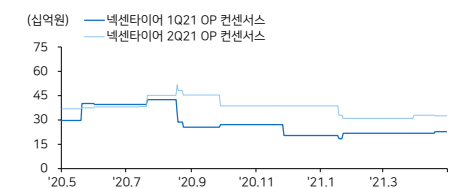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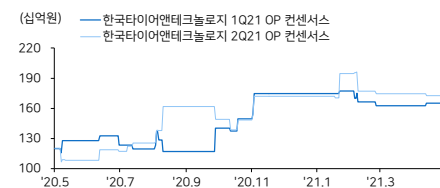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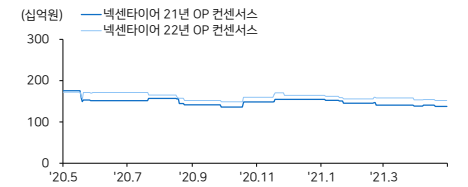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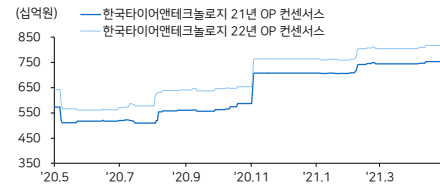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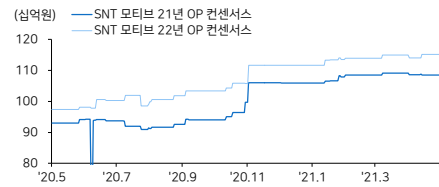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美서 전기차 생산 검토 (해럴드경제)

현대자동차 북미법인인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따라 아이오닉 5 등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해진 현대차그룹 회장의 미국 출장에 이어 전기차 미국 현지 생산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로 해석됨.
<https://bit.ly/3xEGb6u>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판매 12년만에 200만대 돌파 (뉴시스)

지난 4월까지 현대차·기아의 전 세계 친환경차 누적 판매는 204만4,947대를 기록함. 특히 친환경차 판매는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여 2018년 누적 100만대를 돌파, 전기차가 인기를 얻으며 3년만에 재차 200만대를 돌파한 것.
<https://bit.ly/3eFALze>

폭스바겐, 2025년까지 탈탄소화 위해 140억유로 투자 (매일경제)

폭스바겐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함. '30년까지 유럽내 차량당 CO2배출량을 40% 감소(평균 약 17톤) 하고, 전동화 모델비율의 전환 가속, 완성차 생산과정에서의 탄소중립화를 이루어낼 계획.
<https://bit.ly/3ta7VMR>

자율주행, 후방 카메라처럼 당연한 기술될 것 (머니투데이)

발달 주배리 폭스 캐피탈 파트너는 글로벌 컨퍼런스 '2021 킥캣폼'에서 "모든 주행거리가 자율화가 된다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는 '서서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https://bit.ly/3gTjHxS>

2분당 1대꼴 판매...기아, 인도서 1년 7개월 만에 '25만대' 돌파 (THE GURU)

기아 인도법인(KMI)은 인도 자동차 시장 진출 1년 7개월 만에 판매 25만대를 돌파했으며, 이는 인도 내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빠른 속도. 특히 소형 SUV 셀토스와 쏘렌토, 그리고 MPV 카니발 3개 모델만으로 이같은 성과를 냄.
<https://bit.ly/3tenvH8>

20년뒤엔 1700조원 시장... 현대차·한화, '플라이잉 카'로 맞붙는다 (조선비즈)

모건스탠리는 2040년 글로벌 UAM 시장이 1조5,000억달러(약 17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현대차는 설계-제품 양산까지 자체 개발·한화시스템은 글로벌기업과의 협업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 진출 준비 중.
<https://bit.ly/3thoCFX>

도요타, 거인이 잠을 잤다... 미래차 C·A·S·E로 전격! (조선일보)

도요타는 19일 상해모터쇼에서 첫 전기차를 공개, 27일 리프트의 자율주행사업부 인수에 이어 29일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 에 한화 8,900억원을 투자해 기존 설비를 전기차 SUV 생산설비로 교체한다고 발표함.
<https://bit.ly/3trTxxq>

취임 100일' 바이든, 전기차에 힘 실었다 (ZDNet Korea)

미국 세넷은 29일 취임 100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차 정책을 '전기차로 유턴'이란 말로 요약함.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표준 등에 초점을 맞춰, 이런 정책은 자연스럽게 '전기차 우대'로 이어짐.
<https://bit.ly/3uovX8p>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